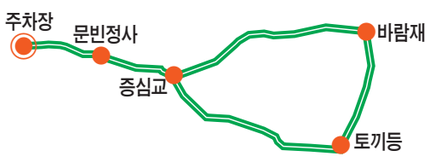
61 광주일보 창사61주년 MILLET MOUNTAIN BY EXPERIENCE 공동주최

엄홍길과 함께하는
한국 명산 16좌 등반

무등산

무등산 산행 코스



지난 23일 광주일보와 (주)밀레가 공동 주최한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한국명산 16차 산행에 참여한 광주, 전남·북 등산애호가들이 단비를 맞으며 무등산을 오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생명수 머금은 숲길…언젠가 그리울 여름날 '雨中산행'

폭염 식히는 단비 온몸 맞으며
울울탕탕 계곡서 여름정취 만끽
16개 명산 산행 대장정 마무리
340명이던 등산객 8배로 늘어

"'비 좀 왔으면…' 하는 모두의 간절한 염원이 통했습니다. 마지막 산행지인 무등산의 산신령이 생명수와 같은 단비를 쫘~악 뿌려줍니다."

(주)밀레·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한국명산 16번째 행선지인 광주 무등산(높이 1187m) 산행에 나섰던 지난 23일, 기적처럼 비가 내렸다.

광주 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광주에 내린 비는 63.5㎜. 광주에는 지난달 8일 37mm의 비가 내린 이후 46일만에 30mm 이상의 비가 내린 셈이다.

그동안 광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음에 따라 36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계속돼 왔는데,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처서(處暑)인 이날 내린 비로 연일 이어지던 무더위가 누그러졌다.

◇무등산 등 전국 16개 명산 산행 호응=지난해 5월 계룡산에서 첫 발을 내디딘 밀레 산행은 주왕산-변산-민주지산(삼도봉)-덕유산-내장산-천관산-가야산-월출산-두륜산-마이산-황매산-대둔산-모악산 등 전국 유명 산을 두루두루 누볐다.

봄 철쭉, 한여름 계곡, 가을 단풍, 한겨울 설경 등 우리나라 산하의 아름다움을 직접 두발로 밟으며 가슴에 담은 의미깊은 여정(旅程)이었다. 초창기 340여명에 불과하던 참여인원도 회를 거듭할 수록 광주, 전남·북 등산 애호가들의 열띤 호응을 얻으며 마지막 산행에는 8배에 가까운 2700여명으로 늘었다.

이날 산행코스는 무등산 관리사무소 주차장을 출발해 문빈정사~바람재~중머리재~장불재~입석대로 잡았다.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서 온 등산 애호가들은 많은 비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마지막 한국 명산산행에 나섰다. 워낙 극심한 가뭄끝에 내리는 단비인지라 엄 대장을 비롯해 많은 등산객들이 비옷을 입지않고 일부러 우중(雨中) 산행을 즐겼다. 일부는 우산을 펼쳤지만 워낙 빗발이 굵은지라 옷이 젖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엄홍길 대장은 "가뭄끝 단비가 너무 반갑다. 무등산 산신령이 비를 몰고 와 가뭄을 해결했다"고 말했다.

생명수에 더욱 싱그러워지는 초록빛깔과 등산객들의 형형색색 비옷은 잘 어울리는 한폭의 그림이었다. 지난해 12월 갑작스런 폭설로 남해 금산 산행이 취소됐을때 무등산을 찾아 설경(雪景)을 즐긴 애호가라면 한겨울과 한여름 무등산의 정취를 모두 만끽하는 호사를 누렸다고 얘기할 만한 특별한 산행이리라.

주차장에서 토끼등 쉼터까지는 1시간여 거리. 빗물에 샤워하듯 옷이 흠뻑 젖어도 결코 싫지 않은 산행길이었다. 하지만 산행도중 비가 굵어지며 호우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토끼등에서 발걸음을 돌려 하산키로 했다. 무등산 정상은 짙은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등산 애호가, 힘얻는 힐링 산행=한 방울의 빗방울로 시작된 물줄기는 금세 울울탕탕 계곡을 채우며 시원스레 흘러내렸다.

16개 산 가운데 14개 명산 산행에 동행한 이영희(45·첨단동) 씨는 "엄 대장과 함께 한 산행을 통해 땀을 흘리고 하다보면 일상생활에서 번잡한 것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기운이 솟는… 한마디로 '힐링'(Healing=치유)이었다"고 평했다. 많은 참여자들은 그동안 매월 네째주 금요일을 설레는 맘으로 기다려 왔는데, 산행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게 돼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그동안 히말라야 8000m급 16좌를 완등한 엄 대장과 산행을 함께 하면서 산을 좋아하게 됐고, 많은 용기와 힘을 얻었다"며 엄 대장과 삼삼오오 기념사진을 함께 찍고 사인을 받았다.

엄홍길 대장은 "계룡산에서 시작해서 지나온 16개 산 모두 기억에 남지만 광주시민의 긍지이자 에너지를 북돋워주는 무등산에서 한국명산 16좌 산행을 마무리 하게 돼 뿌듯하다"며 "그동안 동행한 광주, 전남·북 등산 애호가들과 정이 들어 가족같고, 동료의식을 느낀다. 아름답고 행복한 산행이었다"고 16좌 산행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한다. 길이 끝나고 새로운 길이 시작되듯이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그동안 함께 해준 호남지역 등산 애호가들에게 애정과 고마움을 표했다. 〈끝〉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엄홍길 대장과 참가자들이 출발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